

청년의 꿈-자본 구성과 확장의 서사: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 참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인정** · 이지수*** · 서정희****

요약

본 연구는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부산 거주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좌절의 아이콘으로 청년을 지칭하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꿈을 갖고,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험을 살피고, 기본소득이 그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1, 2차에 참여한 청년 19명(중복 제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경험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청년들은 재미로 출발한 꿈을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식·발전시키고 있었다. 다만, 사회적인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취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꿈을 추구하는 것은 별도의 생계노동을 병행하며 홀로 고군분투하는 일이었다. 결국 청년들은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또 다시 기본소득 프로젝트라는 실험을 시도했고, 이를 통해 얻은 월 100만 원은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꿈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본소득 실험은 끝났지만, 어떤 조건도 없이 청년들을 환대하는 정책은 꿈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자신만의 경험을 선사했고, 보다 나은 조건에서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게 했으며, 자신의 꿈을 지지해 줄 동료를 확보해주었다. 청년들은 그렇게 다시 꿈을 향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처럼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제는 청년들의 꿈을 서사를 전환시켰고,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서사를 '고군분투'와 '좌절'에서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으로 전환시켰고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구해야 할 지향을 보여주며, 보편적·무조건적·개별적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꿈, 꿈-자본, 청년, 기본소득,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

* 본 연구는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실시한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프로젝트 참여자분들과 인터뷰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님, 조광자 선생님, 오주연 선생님, 윤형중 LAB2050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주저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hanpalme@gmail.com)

*** 공동저자,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wljs@kunsan.ac.kr)

**** 교신저자,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sjh@kunsan.ac.kr)

1. 문제제기

꿈은 근대성의 핵심 주제다. 근대 문학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부모는 아이에 앞서 인생을 예상하면서 꿈을 가르치고 꿈의 실현을 고대한다. 기업은 경쟁력 있고 탄탄한 미래의 회사를 꿈꾸면서 경쟁과 혁신을 경주한다. 분쟁상태의 지역이 평화를 갈망하고, 분단된 민족이 통일을 바라며, 분열된 사회가 통합된 질서를 기대하는 것도 집합적 꿈꾸기의 하나다. 이처럼 꿈은 개인의 일상을 추동하는 자산임과 동시에 한 시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공공의 자산이었다(박명규 외, 2018: 5).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꿈의 이야기가 가능할까. 중산층의 신화는 붕괴했으며,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폐기됐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장기적 전망이 소멸했으며, 무한경쟁으로 인한 피로감, 사회적 불평등, 직종·직위 간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희망에 대한 확신이 감소하는 것이다. 김홍중(2018)은 이를 ‘미래 빈곤’ 현상이라 지칭한다. 그래서인지 개인이나 집단이나 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청년의 꿈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로 치부된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3포세대(연애·결혼·출산)를 넘어, 5포세대(3포+주거·인간관계), 7포세대(5포+희망·꿈), N포세대로 불리며 좌절의 아이콘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 관련 지표(경제·교육·건강·주거 등)는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청년 연구는 ‘포기’에 ‘포기’를 거듭하는 청년들의 불안 정성에 주목한다(박성준, 2005; 김찬중 외, 2009; 김영순, 2013; 김영재·정상완, 2013; 김성희, 2015; 최용환, 2015; 이승윤 외, 2017; 추주희, 2017; 전명숙, 2018; 남재욱 외, 2018; 진형익·이미숙, 2019; 장민, 2019; 오유진·김교성, 2019; 김규혜 외, 2020). 그래서 청년은 “일반화된 경쟁 상황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주하는 생존주의를 가진” 사람들로서 ‘생존주의 세대’로 정의되기도 한다(김홍중, 2015a: 179).

하지만 청년들을 불안정에 굴복하는 존재로 낙인찍는 것은 선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존 압박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식 속에서 청년들의 독특한 시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가령 프리캐리아트로서 예술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청년들이 을의 위치에서 경험했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연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신경아, 2017), 사회 중심부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자영업을 또 다른 피난처로 선택하기도 한다(최나현, 2020). 청년들은 이직을 결정할 때 경제적 측면 외에도 자아실현, 사회적 인정 획득, 사회적 역할 수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결정한다(이현서·심희경, 2016).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다가도 ‘진정성’과 ‘자기계발’을 위해 퇴사를 실행하기도 하고(김초롱·오세일, 2017),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노동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 직군에서 의미 있는 노동을 하거나(명수민·이영룡, 2015), 생태지향형 활동

으로 나아가기도 한다(한인정·이지은, 2023).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년의 삶과 행태를 분석할 때 삶의 지향과 다양한 욕구를 포괄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비관과 낙관이 동시에 존재하는 청년의 삶을 관찰하기 위해선 어떤 렌즈가 필요한 것일까. 본 연구는 그 행위를 추동하는 주요한 나침반 중 하나로 '꿈'을 소환하고자 한다. 나아가 '꿈의 사회학'(박명규 외, 2018)에 천착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꿈은 우리가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간 수면 상태에서 체험하는 가상적 현상이자 오묘한 상징 사건이며, 소통이나 이해가 몹시 어려운, 고도로 주관적인 체험(김홍중, 2015a: 33)이지만, 동시에 꿈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각성상태에서 심중에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 원망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김홍중, 2015a: 34). 이는 꿈이 개인의 심리적 체험일 뿐 아니라, 사회현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통찰에 입각한다.

그러나 꿈을 꾸고, 꿈을 시도하고, 꿈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바탕 위에서 작동하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꿈은 경제적, 문화적 자본들의 영향 하에 또 다른 자본이 된다(김석호 외, 2017). 꿈-자본은 개인의 환상에 의해서 마치 사회적 진공상태에서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제 및 기존의 자본들이라는 대립하는 두 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이다(김홍중, 2018). 그래서 꿈-자본은 개인의 내적 열망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제도 등의 외적 요인들과 끊임없이 교섭하고, 변형하면서 작동한다. 꿈과 꿈-자본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선 행위자의 내적 열망과 동시에 외적 요인의 변형을 상세히 살피고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꿈-자본 형성 과정을 다룬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한데다가 몇몇 직군에 한정되어 있어서, 꿈을 구성하고 실현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꿈-자본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장(場)이 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기본소득은 꿈이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경제적 자원을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은 기존의 정책과 달리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기반으로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각자에게 부여하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꿈을 추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내적 열망과 다른 자본이 서로 교섭하고 변형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에서 진행된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은 '기본소득으로 부산 청년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실험 참여자 모집광고에는 부산 청년들이 기본소득으로 행복한 소비를 하기를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메시지는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 기획자들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며 '가시적 성과'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의하고 추구할 행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결정적 행복의 한 측면으로서 '꿈-자본'을 확인하고

자 한다. 이는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이 진행시킨 두 차례의 청년기본소득 실험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꿈과 꿈-자본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꿈-자본의 상향과 변형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꿈의 사회학

꿈의 사회학에서 꿈은 “i) 욕망과 희망의 작용을 통해 구성/교섭/변형되며, ii) 실천의 흐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iii) 미래의 소망표상”이다(김홍중, 2018: 28). 즉 꿈은 현실에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심지어 현실화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태를 변형시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려는 상상의 행위, 그런 상상력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는 행위를 추동한다. 이는 꿈이 미래의 생성자이며, 행위자들의 심적 에너지를 발동시키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특정 방향으로 동원해 현실화하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김홍중, 2015).

사회과학에서 꿈의 중요성, 희망의 가능성, 전망의 공간을 모색하려는 노력들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사회학자 콜린스는 의례와 상징적 삶의 사회학을 목표이자 이상으로 삼아 그 최대치를 설계하는 ‘꿈의 사회학’을 주창한 바 있고, 카이유와 나바스티드도 깨어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몽상의 세계도 의미 있는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김홍중, 2016: 33).

그런데 위험사회 혹은 후기 근대사회가 도래하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에 기초한 진보적 역사철학이 쇠퇴하고, 대안적 사회형태에 대한 상상력이 퇴조하고 있다(김홍중, 2018). 또한 현재의 의미를 미래에 획득하게 될 열매에서 찾고자 금융적으로 노동하고 절약하는 근대적 에토스가 약화되어, 현대 사회에서 탈미래화(defuturizing)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한국사회가 상정하는 미래는 암보험 광고, 대출 광고로 대변되며, 이는 신체적 고통과 부채와 결합되어 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빈곤층들이 평생직장이나 사회안전망과 같은 장기적 전망의 결여로 인해, 현재의 빈곤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최소한의 믿음과 희망을 품는 것을 금기시하는 “미래의 빈곤” 현상이 나타난다(김홍중, 2018). 바우만(2009)에 따르면 고체 근대의 핵심이 미래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데 있었다면, 액체근대의 핵심은 미래의 담보를 기피하는 것에 있다.

특히 이러한 미래의 빈곤이나 꿈의 빈곤과 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기된다. 생애주기에서 청년 시기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구성해나가는 시기다. 이 시기는 중·장년에 비해 미래와 꿈에 대한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스스로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의 3포 세대에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한 4포 세대, 여기에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라는 말을 거쳐,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7포 세대로, 그리고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N포 세대라고 자조한다(서정희 외, 2019).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이러한 좌절을 극복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의 삶은 졸업-취직-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정상적 삶이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으로 변화되어 생애과정이 탈표준화(destandardized) 되고 있다(Bruckner and Mayer, 2005; 김홍중, 2015: 189~190에서 재인용).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실업자 중 상당수가 청년층(15~29세)이고, 인력 유희화율 면에서 청년이 55세 이상의 장년 및 노년보다 높으며(오재호 외, 2019), 청년층에서만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이승윤 외, 2017). 청년 중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취업도 되지 않은 니트(NEET) 비중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OECD, 2016).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학력이 차별성을 잃게 되었고, 청년들은 또 다른 차별적 요소인 자격증, 어학연수, 인턴 경력 등 ‘스펙 쌓기’로 지칭되는 취업준비활동을 이어가지만, ‘스펙’조차 상향 평준화 되어 차별성을 잃었다(김홍중, 2015b). 스펙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면서, 청년들은 대학졸업을 유예하며 스펙을 준비한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에 평균 51개월(남성 61개월, 여성 42개월)이 소요된다(윤윤규 외, 2017: 16). 청년기에 겪는 취업 실패 경험은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생애과정에서 장기적인 상처효과(scare effect)로 이어진다(한승헌 외, 2017: 95). 문제는 취업이 되더라도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2023년 청년 임금근로자의 첫 일자리의 근로 형태는 43.9%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한시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시적 일자리에 종사한다(통계청, 2023). 청년들의 이러한 상황은 우울, 불안, 알코올과 약물 남용, 불면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한승헌 외, 2017).

우리 사회는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어 왔고, 부동산은 주요한 부의 축적 수단이 되어왔다. 부동산 시장의 가열로 인한 수혜와 폐해가 세대별로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았는데, 연평균 가계소득(30대일 때의 가계소득)과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세대별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보면 가계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은다고 가정할 때, 1965년생은 10.1년, 1975년생은 15.8년, 1985년생은 16.0년이 걸린다(김정훈 외, 2019).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50~70% 수준으로 형성되

면서, 청년 세대는 자기뿐만 아니라 전세 마련도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적인 문제로, 미혼 남녀들이 이성교제를 희망하지만 실제 이성교제조차 하지 못한다(조성호, 2014; 2018). 결국 이러한 문제는 주택을 사거나 임대하지 못하는 문제로만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는 야마다 마사히로(2010)가 현대 사회의 양극화가 양적 격차(경제적 격차)에서 시작하여 질적 격차(직종이나 생활스타일 격차, 신분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심리적 격차(희망 격차)로 연결된다고 주장한 것의 방증이다. 한국의 청년 세대는 이제 꿈과 희망을 포기한 N포 세대로 자조한다. 한국의 청년 세대가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회적 행위자가 희망을 구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꿈은 자본이 된다. 꿈꾸는 능력이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 것은 “꿈꾸는 능력 자체가 상속되고, 교육되고, 분배되고, 축적되고, 육성되는 사회적 과정에 포섭되어 중요한 자원으로 인지되고 취급되기 때문이다”(김석호 외, 2017: 296).

2) 꿈-자본

꿈에는 행위자들의 희망, 전망, 낙관, 상상, 염원, 망상, 몽상, 환상 등 수많은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김홍중, 2018: 23-27). 김홍중(2015a)은 행위자들의 다양한 꿈꾸기를 드러내기 위해 부르디외의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라는 자본의 분류와 확장을 넘어 ‘꿈-자본’을 구성한다. 꿈-자본이란 아직 획득되지 못한 미래의 자본들에 대한 꿈이 개인 행위자에 의해 소유되고 축적되며 관리되는 중요한 자본임을 뜻한다. 무엇보다 꿈-자본의 존재론적 특이성은 그것이 다른 형태의 자본들 이전에 존재하는 원형적인 자본 형태라는 사실이다. 즉 꿈-자본은 한 알의 씨앗처럼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아직 실체적 자본이 아니지만, 그 씨앗이 실천으로, 화폐로, 관계로 발아한다. 이런 점에서 꿈-자본은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이지만, 그것의 작용으로 가시적 성과와 물질적 결과가 생산된다. 즉 다른 자본 이전에 발동해 해당 자본을 지향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셈이다(김홍중, 2015a).

그렇지만 꿈-자본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개인의 환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꿈-자본은 개인적 욕망과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사회제도와 같은 외부의 힘과 대립하면서 변증법적 과정을 밟는다(김홍중, 2018: 35~36). 변증법적 과정의 세 가지 양태는 i) 주관적 희망과 합리적 계산의 변증법 ii) 진정성과 순응주의의 변증법 iii) 내밀성과 소통의 변증법으로 구분된다. 첫째, 주관적 희망과 합리적 계산의 변증법은 꿈이 주관적 환상의 자발성일 뿐만 아니라, 그와 대립되는 합리적 판단과 평가의 개입을 통해 조형된다는 점이다. 꿈꾸는 행위

자는 자신의 열망의 실현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을 부단히 예측하고 그 판단들에 기초하여 꿈의 강도와 내용을 조정해 가는 합리적 조율을 수행한다. 둘째, 사회적 행위자들이 꿈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은 자기 자신의 욕망에의 충실함, 즉 꿈의 진정성과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순응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교섭, 충돌, 갈등, 타협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진정성이란 성찰을 통해 삶의 기준을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서 찾고자 하는 윤리적 태도를 가리키는데, 꿈의 진정성은 개인이 품고 있는 염원이나 소망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관철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리킨다. 셋째, 꿈은 개인들의 가장 은밀한 심적 영역을 점령하는 생각, 감정, 의지이다. 이와 동시에 꿈은 언제나 의미 있는 타자들에게 소통되고, 여러 형태의 관계 속에서 강화되거나 약화되고, 전염되거나 전파된다. 가장 개인적으로 보이는 꿈도 많은 경우 타인들이 다양한 경로로 행사한 영향력의 산물이다(김홍중, 2018, 35-36). 그러므로 우리는 꿈-자본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꿈-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원천들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꿈-자본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축적, 배분, 관리, 상속되는 것으로 국가·사회·민족과 같은 공적(公的) 수준, 조직·장·모임·단체·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공적(共的) 수준, 가족과 자아를 포함하는 사적(私的)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김홍중, 2015).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꿈-자본이 근본적으로 사회(장)의 영향을 받지만, 자아와 같은 행위자의 본질적 성격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자본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선 꿈-자본을 둘러싼 내외부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복잡다단한 꿈-자본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꿈의 사회학을 구성하고 있는 국내 학자들은 꿈-자본 척도를 개발하였다. 김석호 외(2017)는 꿈-자본 척도의 구성항목으로 상상력, 낙관성, 희망, 회복탄력성이라는 4가지 하위 구성 척도를 제시한다. 첫째, 상상력은 꿈-자본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을 통해 구성해낼 수 있는 힘이다. 둘째,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인지적(cognitive) 긍정의 능력으로 파악한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 생각, 평가로 구성된다. 셋째, 희망은 미래에 대한 감정적 능력으로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는 무관한 감정적 동력을 만들어낸다. 넷째, 회복탄력성은 행위자가 좌절이나 난관 등의 위기와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 힘을 지칭한다(김석호 외, 2017 : 296-297).

꿈-자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적 연구와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꿈-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꿈-자본은 교육 수준(김석호 외, 2017), 지역 청년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자본(박해남·박미희, 2021), 가족관계의 질(김석호 외, 2019), 빈곤 여부(김지혜 외, 202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정우연 외, 2022), 이주 노동자들의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기반의 부재(최종렬, 2018)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꿈-자본이 경제적 불

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꿈-자본이 경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요인들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꿈-자본은 다른 자본과 달리 개인의 열망과 의지에도 영향을 받는다(정우연 외, 2022). 특히 꿈-자본의 형성 과정에는 진정한 문학(시),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자아에 대한 열망이나(김홍중, 2016),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사회혁신 창업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꿈(조문영, 2018),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박송이, 2019), 사회 이동성이나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성연주·김지애, 2017)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꿈-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자본, 빈곤여부 등의 불평등과 관련된 외적 요인이나 자신의 열망, 꿈, 소비 트렌드, 인식 등의 내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성과이긴 하나, 꿈-자본의 일면만을 드러낸다. 꿈-자본이 외적 요인과 내적 열망의 끊임없는 구성, 교섭, 변형의 연속이라 한다면, 단일한 시점에서의 상황에 머물기보다 행위자의 내적 열망과 동시에 외적 요인의 구성과 실현, 교섭, 변형의 과정들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기본소득과 꿈

기본소득은 꿈-자본의 구성과 변화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꿈-자본이 경제자본으로 치환될 수 없는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은 꿈-자본을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꿈-자본에 영향을 주는 공적 수준(김홍중, 2015)에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행위자 각각이 꿈-자본을 구성하고, 실현하고, 교섭하고, 변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제2조)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기본소득의 특성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 도출된다. 기본소득의 특성 중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을 다른 제도들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안효상·서정희, 2021). 이러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타인의 부당한 간섭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화주의적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안효상·서정희, 2021: 89). 꿈-자본 이론에서 꿈이 한편에서 개인의 열망과 의지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제도와 같은 외적 요인들이 경합하는 장이라고 할 때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기존 제도에

서의 수급 조건과 소비 조건과는 다르게 꿈-자본에서의 개인의 열망과 의지가 제한되지 않고 작동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꿈-자본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꿈-자본의 하위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효과를 다룬 몇몇 연구들이 있다. 비영리 기구인 기브 다이렉틀리(Give Directly)는 케냐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난한 농촌 마을들을 선정해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을 통해 빈곤한 마을의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조건부 현금급여에 비해 건강, 저축, 빈곤감소, 교육, 노동,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Haushofer and Shapiro, 2013; 2016), 2017년부터 12년 간의 장기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기브 다이렉틀리는 여타의 기본소득 실험에 비해 삶의 다차원적 영향력을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꿈-자본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서 사회적 웰빙의 하위항목으로 '열망'과 재정적 선호 항목에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주하려는 의지'가 구성되어 있다.¹⁾ 그러나 아직 실험 도중이라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의 효과에 주목한 연구(Banerjee et al., 2020)와 일부 경제적 효과(Haushofer and Shapiro, 2018), 영양 상태 개선(Almás et al., 2023)에 대한 효과만 보고되고 있을 뿐, 꿈-자본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2018년)을 분석한 서현수·최한수(2020)는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기초실업수당 수급자들(통제집단)보다 주관적 웰빙과 삶의 질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믿음,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려운 삶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등 기존의 꿈-자본 형성 지표와 연관된 사항들에서 통제집단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KELA, 2020: 97-98; 서현수·최한수, 32에서 재인용).

꿈-자본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본소득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청년 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효과분석 지표 중 하나로 '꿈-자본 척도'(김석호 외, 2017)를 사용하여 기본소득이 꿈-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유영성 외, 2019; 2020; 2021; 2022). 이 연구들은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청년들의 꿈-자본 수준을 미세하게나마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1) 기브 다이렉틀리가 기본소득 장기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5가지 파트다. ① 경제적 웰빙: 소비, 자산, 송금, 부채 및 신용, 식량 안보, 고용. ② 건강: 심리적 웰빙, 영양, 인지. ③ 사회적 웰빙: 정신 건강, 가구 내 젠더 관계, 열망, 사회 통합. ④ 거시경제적 복지: 물가 변화, 상품 및 서비스 가용성, 지역 사회 인구 통계, 마을 기반 시설, 정치 참여 및 범죄율. ⑤ 재정적 선호: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이주하려는 의지이다. 출처: <https://www.givedirectly.org/ubi-study/> (최종방문일 2023.10.31.)

그러나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꿈-자본과 관련하여 한계와 동시에 제한적 유의미성을 갖는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새로운 활동’과 ‘기꺼이 위험부담을 지는 도전’을 하게 하지는 않는다(이선영 외, 2020).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충분한 수준으로 주어지는 것 또한 마음껏 상상하게 하지 못한다. 기본소득에 기대를 품기보다 “사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게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한다(조문영 외, 2021: 326, 336). 그럼에도 일부의 청년들은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 대해 상상하면서 상상만 해도 설레인 다거나, 숨통이 트이는 삶이라거나 마음껏 꿈을 실현하면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서정희·이지은,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 정책인데 반해, 시민사회 운동 차원에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4명에게 6개월의 기간 동안 월 50만 원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실험 프로젝트의 경우 꿈-자본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참여자들이 각자의 숙원사업을 실현함으로써 혹은 희망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갖는 의미들이 드러난다(서정희, 2019).

이러한 연구들은 꿈-자본의 요소들을 일부 보여줌으로써 기본소득과 꿈-자본이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이 꿈-자본을 어떻게 구성하고, 실현시키고, 변형시키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사회단체 ‘(재)부산형시민기금’이 진행한 청년 기본소득프로젝트 실험(이하 부산 기본소득 실험)²⁾에 참여한 18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꿈의 서사를 탐색한다. 부산 기본소득 실험은 2차례에 걸쳐 7개월씩 총 24명(중복 1명 포함)의 청년들을 무작위에 가까운 방식으로 선정하여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기본소득 실험이다.³⁾ 민간 기금으로 일정한 선발

2)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 시즌 1인 “행복시발”은 2021년에 시작되었다. 부산 MBC의 전성호 피디가 제안하여, 부산 MBC,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 부산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각 기관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 참여자 모집과 선발 등의 과정, 참여자들의 실험 경험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14명의 청년에게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시즌 2인 “백발네”에서는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이 단독으로 2022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7개월간 10명의 청년에게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3)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 시즌 1은 2021년 3월부터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했다. 모집 기간동안 총 2천499명의 청년이 지원하였다. 1차로 100명이 선정됐다. 선정과정은 50명은 기획자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무엇에 쓰겠는가’라는 단답형 지원자 메시지를 토대로 부산MBC 담당자들이 선정하였고, 나머지 50명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2단계로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은 1차로 선정된 이들에게 간단한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소개, 기본소득 사용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신청서를 제출받고, 선정위원회(부산형사회연대기금 인사, 부산은행 인사, 시의원, 교수, 사회활동가 등 10명)에서 이 신청서를

과정을 거쳐 소수에게 기간 제한적으로 지급했다는 ‘실험’으로서의 한계를 갖지만, 비교적 충분한 현금이 용처의 제한이나 성과를 요구함이 없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청년의 꿈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사례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꿈과 꿈-자본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꿈-자본의 상향과 변형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선택된 사례 혹은 사례들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정 인식론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질문과 형태, 연구설계에서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다(김인숙, 2016: 143). 사례연구 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례를 선택한다는 데 있다. 사례는 사건, 개인, 과정, 제도, 사회적 집단, 지역사회 조직 등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주변의 다른 체계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김인숙, 2016: 145).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청년들의 꿈 서사를 자유롭게 탐색하고자 할 때, 사례연구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 기본소득 실험 시즌 1 “행복시발”의 참여자 14명, 시즌 2 “백반네”의 참여자 10명 중 시즌 1 참여자 9명과 시즌 2 참여자 10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이었고, 연령대는 20~30대(20대 9명, 30대 9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종합격투기 선수, 화가, 가수, 댄서, 래퍼, 패션디자이너, 창업, 작가, 복서, 교사, 전업주부,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꿈을 추구하고 있었다. 소득과 연결되는 직업이 아니라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기, 기쁘게 살기, 별 탈 없이 살기 등 원하는 삶의 형태를 ‘꿈’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순번	성별	꿈	인터뷰
1	여	댄서	2022.10.17. 120분
2	남	래퍼	2022.10.17. 120분
3	여	패션디자이너	2022.10.17. 150분
4	여	화가	2022.10.17. 150분
5	남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대형 탁송	2022.10.18. 120분
6	남	요식업 창업	2022.10.18. 120분

토대로 14명의 실험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 시즌 2는 온라인(사회관계망,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되었고, 참여자 모집은 구글폼(인적사항, 실험을 알게 된 경로, 현재직업, 기본소득으로 하고 싶은 것,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집기간동안 약 3천800명이 실험에 지원했다. 이들 중 유튜브 채널 생중계 방송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을 1차 선정하고, 이들에게 인적사항, 자기소개,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기본소득 사용계획, 부산형사회연대기금의 가치에 대한 생각 등의 내용을 담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명의 실험 참여자를 확정하였다.

7	여	가수	2022.10.17. 120분
8	여	작가	2022.10.18. 150분
9	남	종합격투기 선수	2022.10.17. 150분 2022.08.31. 120분 2023.04.07. 150분
10	남	래퍼	2022.09.02. 120분 2023.04.07. 150분
11	여	기쁘게 사는 것. 댄스 교사	2022.08.31. 120분
12	여	전통주 제조 창업	2022.09.01. 120분 2023.04.07. 150분
13	여	가수, 뮤지컬 배우	2022.08.31. 120분 2023.04.06. 150분
14	여	전업주부, 출산과 육아	2022.09.01. 120분 2023.04.05. 150분
15	여	플로리스트	2022.09.01. 120분 2023.04.07. 150분
16	여	별 탈 없는 삶 화장품 회사 사무직	2022.08.30. 120분 2023.04.07. 150분
17	여	복서	2022.09.02. 120분 2023.04.07. 120분
18	여	펫 푸드 창업	2022.08.31. 120분 2023.04.07. 150분

주 1: 본 연구는 시즌 1이 종료하고 시즌 2가 준비되는 시점에 시작되었다. 이에 시즌 1 참여자 중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9명만 사후 인터뷰 형식으로 만날 수 있었다. 시즌 2 참여자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구하고 기본소득 지급 전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 9는 19명 중 유일하게 시즌 1과 시즌 2 모두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11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후 인터뷰에 참여하지 못하여, 사전 인터뷰 자료만 활용하였다.

주 2: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인터뷰 당시로 기록했다. '꿈'은 수행 중인 생계노동과 별개로 이들이 꿈꾸는 직업 또는 삶의 태도에 관한 희망이다. 사례에 따라, 생계노동과 관련될 수도, 무관할 수도 있다.

인터뷰는 모두 개별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다.⁴⁾ 연구진은 인터뷰 주제 선정, 반구조화 질문지 작성 등을 위해 4시간씩 2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시즌 1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각 1회씩, 시즌 2 참여자에 대해서는 청년 11의 경우 1회, 나머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급 전과 후 각 1회씩 총 2회의 인터뷰가 진행되어 총 28회의 면접이 있었다. 시즌 1 참여자 9명은 2022년 10월 17일~18일에 만났고, 시즌 2 참여자 10명은 2022년 8월 30일~9월 2일에 사전 인터뷰를, 2023년 4월 6일~7일에 사후 인터뷰를 하였다. 2명의 연구자가 한 팀이 되어 3팀의 연구진이 인터뷰를 분담하였다. 각 인터뷰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면접의 도입부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소정의 사례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합과 처리 절차, 녹음과 녹음 파일의 사용 및 폐기에 대한 원칙 등을 설명하며 동의를

4) 본 연구는 인터뷰의 기획과 시작의 과정에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진행하면 시즌 2 시작 전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않았음을 밝힌다.

구했다. 또한 인터뷰에 동의했다더라도 인터뷰를 중단하거나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연구 윤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가졌다. 녹음 파일은 면담이 이루어진 직후 전사하고, 연구진의 생생한 기억을 추가 기록하였다.

양적 연구가 통계를 사용해 자료 속에 있는 패턴과 관계를 찾는다면, 질적 연구는 질적 자료 내에서 패턴과 주제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일이다(김인숙, 2016). 자료를 쪼개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연결 짓고, 개념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꿈-자본이라는 주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구진이 인터뷰 녹취를 반복해서 읽고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실험에 참여한 청년들 거의 모두가 각자 원하는 꿈이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기성 세대와는 다른 점이었다. 왜 꿈을 꾸고, 꿈이 왜 좌절되고, 꿈이 왜 자본이 되는지, 그리고 그 꿈-자본이 어떻게 구성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년들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인터뷰 녹취록뿐 아니라 기본소득 실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제출한 개인 기록물(신청서, 브이로그 영상, 성과 공유회 자료 등), 언론매체의 개인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각 참여자를 면접한 연구자들이 연구참여자 개인별로 전체 줄거리를 구성하고, 전체 연구진 회의를 통해 참여자들이 진술한 꿈의 의미와 꿈 추구 과정을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 나갔다. 각 자료에서 의미 단위를 분석하고 패턴을 도출한 후, 패턴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범주를 묶어냈다. 범주를 배열·재배열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며 추상화하고 해석함으로써 범주를 명명하고 범주 간의 위치성을 도출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의 꿈의 서사를 그려나갔다.

4. 현실과 꿈

철학자 니체에게 ‘꿈’은 비이성적 능력과 ‘힘에의 의지’가 자유롭게 발휘된 상징이다. 꿈은 언어와 논리적 사유로 점철된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넘어서 “인간의 가장 내밀한 측면, ‘생긴 그대로의 인간’을 드러내는” 상징이고, 이성을 벗어나 “원초적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서광렬, 2019: 259)이다. 그러나 “니체에 의하면 근대인들은 더 이상 꿈꾸지 못한다.”(서광렬, 2019: 257). 이성적 사유가 과잉인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성의 과잉은 인류공동체의 원형을 무의식의 세계로 가둔 채, 보편적이고 평균적이고 왜소한 인간으로 살기를 강요한다. “꿈을 꾸고 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한 근대인은 내면세계와의 단절을 경험할 뿐 아니라, 꿈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근원적 생명력 또한 상실”(서광렬, 2019: 266)한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평균적 삶의 틀에 갇혀 회피했던 위험한 모험과 낯선 것에 직면하고, 이성

적 의미체계만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의 창조와 자아의 상승에 도달하게 한다. 이것은 현실의 시공을 무한히 확장하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고, 자신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더 높은 인간’(Höherer Mensch), 나아가 ‘위대한 인간’(Übermensch)이 되는 길이다(서광렬, 2019: 267-271). 그리고 여기에는 ‘힘에의 의지’가 작동한다. 이 의지는 초월적이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다. 다만,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외적 대상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른 상태로 이행하고자 하는 열망, 그러기 위해 결핍된 것을 얻고자 하는 구체적 추동력이다(박정희, 2006).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역정은 니체의 꿈에 대한 통찰을 떠올리게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청년은 꿈이 없던 시절을 “흘러가는 대로 살았”(참여자 9)던 때라고 한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를 통해 갖게 된 재미는 꿈을 꾸게 했고, 꿈 실현을 가로막는 구체적인 결핍을 메꾸려는 의지를 추동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아 스스로를 상승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것은 타인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주어지는 평균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안에 꿈틀대는 ‘근원적 생명력’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꿈을 현실로 소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는 힘이기도 했다. 과연 청년들은 어떤 지점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꿈을 실현하는 데에는 어떤 장벽들이 도사리고 있었을까. 청년들의 서사를 따라가 보자.

1) 그저 존재하기에서 꿈꾸며 존재하기로

청년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사회적 트렌드, 사회적 기준, 돈을 따라가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군가 정해진 목표와 기준치를 쫓아가는 삶은 청년들에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열정을 품지 못한 채 그저 존재했다. 가령 청년 2는 “막연하게 유명한 음악을 좋아해서 실용음악과에 들어갔”지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 차서 잘하지 못할 때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청년 10은 “중국이 뜬다는 생각에 중국어학과를 갔”지만, “재미가 없었다”며, 당시의 기억은 그저 “뒤쳐지지 않게 애쓰는 삶”이었다고 회상한다. 안정되고 괜찮은 임금의 직장을 가져보았던 청년(6, 9, 11, 14)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다 보니, “지칠 때가 많았다.” 부모님의 권유로 “좋은 대학”에 진학한 청년 8은 전공이 자기 적성과 맞지 않아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꼈다.

“부모님이 강력하게 좋은 대학을 가야한다 해서 좇대 없이 이거 가야 하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너무 안 맞았어요. 방향을 시작해서... 바보가 된 느낌.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 학교 다니는 내내 느꼈어요. 나만 빼고 다 외계어 하는. 그런 소외감을 너무 오래 느꼈어요.” (청년 8)

(1) 문득 찾아온 재미, 깨어나는 나의 꿈

현실은 고되고 미래는 담보되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방황하던 청년들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 ‘꿈’을 꾸게 된다. 그 계기는 “재미”(청년 3, 6, 9, 17)였다.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없어, 맨 처음 목표는 돈이었는데, 돈만 좇다 보니 지칠 때가 많았다”는 청년 6은 식품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비로소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재미가 있는 일을 하다보니, 힘이 되고” 하나하나 경험을 쌓으며 “식품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다니던 청년 17은 “운동하러 갔다가 재미가 있어”서, “(일을) 때려치우고 트레이너 준비를 하는데, 너무 재미 있었”다.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청년 9는 “그냥 취업해 있는 건 성에 안 찬”다며 “운동은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며,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돈벌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돈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열정을 다하는 일이다. 자신을 상승시키는 ‘꿈’이 된 것이다.

“저는 재미있어야 해요. 운동도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 재밌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지, 그거는 돈벌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니까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재밌고 잘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잘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고. 안 되는 걸 계속 연습해서 다시 되는 그런 성취감이 중요해요. 그냥 취업해 있는 거. 돈 버는 건 성에 안 차요.” (청년 9)

(2) 나만의 고유성, 세상에 나를 새겨 넣기

청년들이 꿈에 부여하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에 ‘나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꿈은 나의 표현이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서 인정받는 일이다. 화가(청년 4), 작가(청년 8), 래퍼(청년 2, 10), 플로리스트(청년 15) 등을 꿈꾸는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자아실현”(청년 8), “나를 보여주는”(청년 10), “나를 표현하는”(청년 15), “내가 좋아하는”(청년 2), “나만의 방식”(청년 4) 등으로 설명했다. 청년 15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우연히 플로리스트 영상을 보게 됐고, “(저걸) 내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플로리스트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예술적인 매력”이 있다. “사람들이 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느낌이 다 다르고”, “진짜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예술”처럼 느껴진다. “떡고 살아야 하니까 했던” 그전의 일들과 달리 “(장시간 일 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일이고, 집안 형편 때문에 내보이지도 못하고 묻어 두었던 어린 시절의 꿈 “미술”에 다시 다가가는 일이기도 하다. 청년 2는 “대중이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한다. 청년 4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림은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남들이 뭘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 그림은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글 쓰시는 분들은 글로써 자기 생각이나 겪은 걸 표현하고, 노래하는 분은 노래 가사로써 이런 걸 표현한다면. 저는 제 그림으로 제 생각을 표현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청년 4)

고유성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좌표가 된다. 늘 세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자신을 평가해 왔지만, 고유성이라는 좌표를 갖고 나서는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다. 청년 10에게 힙합은 “나만의 이야기를 멋있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서 매력적이다. 부산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영도라는 작은 지역에서 “아무 것도 없는 내가 보여줘야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힙합이 노래하는 사람의 고유성을 최대의 무기로 하는 장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자신의 예명인 “ALT”에 담았다.

“영도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영도라는 지역이 제 친구들로 봐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우물 안 개구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잘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 타자 자판에서 ALT는 무언가를 대체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이 잘사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보여줘야겠다는 느낌으로. … 힙합에 대한 꿈을 가지고, 대학교 교수님께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자퇴를 하고 왔습니다. 재미도 있고. 마음이 편하고. 어떤 노래를 만들었을 때 성취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청년 10)

한편 꿈은 직업보다 더 포괄적인 어떤 것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태도와 가치관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 자체가 꿈이 된다. 참여자 5와 14는 가족과의 행복을 꿈꾼다. 아이 1명을 키우는 엄마인 청년 14는 “성취감도 있고, 배움도 있는 일을” 해도 좋겠지만, “제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이렇게 (가족이) 같이 있는 행복에서 오는 것” 같으며, 직업보다는 가족과 안정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갖는 것을 꿈이라 표현했다. 아내와 함께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청년 5 역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꿈꾼다.

“애들이 올망졸망하고 키우는 맛이 귀엽고 막 그렇잖아요. 애착심도 생기고. …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애들하고 여행 가고 싶고, 저녁에 같이 놀고 싶고.” (청년 5)

(3) 욕망하기, 꿈 실현에 대한 의지

재미와 고유성으로 청년들을 매혹한 꿈은 추상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능

게 하려는 ‘힘에의 의지’로 발휘된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은 결코 쉽고 편하지 않지만 열망하고 몰입하고 가슴 뛰게 하는 무엇이다. 이는 합리적 이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벅찬 감정이다. 청년 17에게 꿈을 실현하는 과정은 “하기 싫을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무조건 하길 잘했다고 느끼”게 되는 일이다. 댄서를 꿈꾸는 청년 1은 “춤을 진짜 좋아하고”, “이 걸 할 때 가슴이 뛰고”, “정말 행복한 일”이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다면 못 할 것 같”다고 설명한다. 청년 9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며, “뭔가 처음으로 되게 열심히 해봤던 것 같”다고 한다.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꾸는 청년 3은 자신의 개인브랜드를 운영 하는 과정에 대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기에 “나태해질 때도”, “힘이 되어”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주 장인을 꿈꾸는 청년 12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술 빛는 일이 “어렵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술이 잘 내려졌을 때의 희열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술을 좋아하니까 (술과 관련된)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상상 했는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어렵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 빛는 과정은 되게 힘든데. 빚고 나서 술을 내리는데 잘 내려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청년 12)

2) 부딪힘: 홀로 버티고, 무너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하는...

하지만 꿈을 꾸는 것은 내적 열망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꿈을 꾸는 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청년들은 주변의 사적, 공적 지원망에서 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저런 조건이 장애물이 된다. 홀로 꿈을 실현해야 하는 청년들은 자구책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 과정에서 꿈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에 불안했다. 그 과정은 몇 번이고 반복됐고, 무너지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번아웃에 이르기도 한다. 결국 좌절을 극복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에 이르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은 그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에 회의와 허무를 느끼며 자책하게 되었다(유영성 외, 2020). 이 절에서는 청년들의 내적 열망이 열악한 외부 조건과 부딪혀 발생하는 파열음을 청년들의 서사로 쫓아가 본다.

(1) 돈과 시간을 먹여야 지켜지는 꿈

꿈을 꾸는 데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하나같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

워야 했다. 그러나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청년 1, 3, 5, 6, 9, 15, 18). 청년 1은 “스트릿 댄스를 추고 있는데, 현대무용도 너무 배워보고 싶고”, “(더) 전문적인 데로 배우러 다니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360만 원”에 달하는 수강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너무 비싸”서, “내 돈 주고는 절대 못 하”겠지만 “정말 배우고 싶”다고 몇 번이고 강조한다. 강아지 수제 간식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 18은 “뭘 배워야 창업을 할”텐데, “수제 간식 만드는 걸 가르쳐주는 학원비는 항상 비싸”서 시작을 할 수 없다. 자격증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는 있어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못 배우겠다 싶어서 그냥 말았”다. 청년 7은 “(보컬) 학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인데, “알바 해도 50만 원 버는” 자신이 학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고 (시작)하지 못”한다.

“(수제) 간식 배우는 거는 (중략) 항상 비쌌던 걸로 기억해서 이거 배우려면.. 못 배우겠다 싶어서 그냥 말았는데.” (비용 때문인가요?) “비싸거든요. 막 12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80만 원. 케이크 비싼 게 120만 원, 이렇게 하고 싼 게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근데 자격증 하나 가지고 창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뭘 배워야 하는 건데, 창업도.” (청년 18)

학원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배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비나 장비 비용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타일을 배우는 청년 6은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막상 집에서 타일 자르는 실습하려면 자기의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상 “사수의 장비”를 빌려 써야 하는데,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애지중지 하”게 되고 “뭔가를 시도하기에 부담”이 된다. 청년 15는 “과제 하나 하려면 꽃 비용이 5만 원 정도 들어”간다. “생화라서 금방 시들고, 그럼 또 꽃도 사야 하는데”, “매번 시험 칠 때 2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너무 큰 부담이다. 청년 9는 평소에도 “글러브, 렉가드, 마우스피스, 운동복, 치료비” 등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고, 시합을 나가게 되면 “출전비도 내야 하고”, 출전지에 가려면 “교통비도 들고”, “숙소비, 식비, 경비”도 모두 선수 본인이 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세컨비라고 해서, 옆에서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 그 비용도 제가 내야” 한다. 모두 합하면 시합출전료를 얼마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금전적인 투자를 한다고 바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해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먹고사는 문제는 또 그것대로 해결해야 한다. 꿈과 무관한 생계노동에 시간을 쓰는 것은 청년들을 꿈에서 멀어지게 한다. 청년 12는 “(전통주) 수업을 몇 개월 과정 들었는데도, 배우고 나서 혼자서 하니 일정한 맛이 나오지 않아”서 “되게 어려웠”다. 혼자서 해보고 실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서 (배운 것도) 흐지부지 될” 거라는 위기를 느꼈다. 청년 10은 “전업 음악가가 되는 게 가장 원하는 것”이다. “단독공연

도 가고”, “게스트로 초대되서 오프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클럽에서 파티 게스트로 가”기도 하면서 음악 관련된 일을 계속한다. 그러나 음악 일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 결국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오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오만 일”은 “음악만이 의미 있는” 그에게는 꿈의 실현을 늦추는 걸림돌일 뿐이다.

“전업 음악가가 되는 게 가장 크게 원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긴 하죠... 저 혼자 단독공연도 있고. 다른 분 공연에 게스트로 초대되서 오프닝하는 경우도 있고. 클럽에서 파티 게스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음악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음악과 현재 하는 생계 노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저는 살면서 뭔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은 없고, 그냥 오만 일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음악만이 의미있고.” (청년 10)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다. 꿈으로 먹고 사는 일은 사실상 ‘꿈’에 가까웠다. 청년 11은 방과 후 교사로 일하며 “어떻게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매일 연구하”지만, 주 2회의 수업을 하는 게 전부다. 청년 4는 “졸업 후에도 (화가) 작가를 희망하지만”,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 하면서 취미생활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한다. 청년 8은 “글로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한다. 에디터 원고나 제품을 써보고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 블로그 협찬을 받아 글을 쓰는 것 등이 글로 돈을 버는 방법들이지만, 이런 일들은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 “글이 똑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건건이 후불로 지급되는 사례비는 안정적이지 않아서 “각이 안 나오는”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글로서 돈을 벌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바이럴 마케팅도 생각해 보고, 에디터 원고도 생각해 보고, 제품 소개받아서 하는 것도 해보고, 블로그 협찬 받아서 글 써주고 그런 것도 해봤는데,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 제가 원고를 한 개 쓰면 15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을 받으려면 6, 7번을 써야 하는데, 글이 똑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품을 받아서 사용해 보고, 사진도 찍고, 기획도 쓰고, 원고도 쓰고. 또 사이트에 올려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지급받는 거라.” (청년 8)

이처럼 꿈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년 5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가는 시간조차 내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도 아이들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니, 직업에서의 “워라벨”은 남의 일이다. 국가가 주는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사교육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 “내 시간을 내는 거”는 기대할 수 없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대형 탁송 기사가 되고자 하는 꿈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 같다.

“제가 힘들었던 게 내 시간이 없다는 거. 공휴일 같은 경우에 쉬는 날이 없고, 큰 애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도 시간을 뺄 수 없으니까. 사실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워라벨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유치원 졸업식 이런 거는 참석을 하고 싶은데. 아예 시간이 없으니까. ... 사람들이 나라에서 (아동)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고 다 공짜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방과후 피아노, 미술, 영어 이런 거 하나씩만 보내도 30만 원씩 나오거든요.” (청년 5)

(2) 온전한 지원은 아닌, 대가를 요구하는 공적·사적 지원망

그렇다면 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적인 또는 공적인 지원망은 없을까.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 대부분은 ‘홀로’ 꿈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청년들의 꿈을 온전히 지지해 주지 못한다. 경제적 형편이 안 좋다는 것(청년 7, 8, 15, 16, 17)은 부모가 자녀의 꿈을 적극 지원해 주지 못하는 가장 크고 드러나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불안을 거두지 못하고, 부모의 시각으로 성공할 만한 꿈을 꾸기를 원한다. 청년 7은 “그걸(노래)로 니가 10원 한 장 벌 수 있을 거 같아?” 이런 느낌을 엄마로부터 받았다. 댄서가 되고 싶지만 부모에게서 “회계학원 다녀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청년 1은 “너는 노래도 못 부르니까 아이돌 하면 안 된다” 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춤을 시작하면 “아이돌”을 한다고 할 테지만, 그쪽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부모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부모의 불안은 안정적인 직업을 종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동갑의 사촌 6명” 중에서 “3명이 공무원이 된” 청년 13은 부모가 “국립대 나와서 공무원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청년 13은 “처음 실용음악학원 고1때 다닐 때, 엄마가 실력이 올라오면 보내 주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 청년 8은 “부모님이 강력하게 제일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부산대에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여 적성과 무관한 학과에 진학했다. 청년 16은 “엄마는 빠른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며, “요새는 ‘알바만 해서 될 거가’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한다.

특정한 직업에 대한 어른들의 선입견이나 부모 개인의 경험이 작동하기도 한다. 청년 1은 댄스학원에 가지 못한 이유를 “엄마가 (그 학원에) 가면 나쁜 오빠들이 있다,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아서, “아버지가 옛날 분이라서 춤 그만두고 뭐 배워라”해서였다고 설명한다. 청년 9는 종합격투기를 시작할 때, “옛날 유도선수”여서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웠던 청년 7의 엄마에게 노래는 “아빠가 노래하기를 엄청 좋아했는데...제가 아빠를 닮아서 노래 부르지만 좋아한다, 약간 이런” 것이어서 지지받기 어려웠다.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좋아했지만 계속해서 엄마의 반대에 부딪혔던 청년 17은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에서 계속 부딪혔던 “어른들의 관념”을 이렇게 설명한다.

“어릴 때는 제가 태권도를 했거든요. 태권도 시작한 계기도. 엄마가 안 보내준다고 했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가서 상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상 받고 나서 갔어요. 태권도를 해서 국가대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그쪽으로 진학을 못하게 부모님이 하셔서. ... 중학교 갈 때부터 운동선수 스카웃 받잖아요. 스카웃 받은 걸 못 가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조금 하다가 접었죠. 뭐 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돈이 왜 많이 든다고 하고, 왜 어렵다고 하지? 그러니까 공부도 조금 못 해도 먹고 사는데, 운동은 완전 잘 해야지, 애매하면 못 먹고 산다면서. 그런 어른들의 관념.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 그냥 장사나 해야겠다 해서 대학교 안 가려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취업 잘 되는데 아무 데나 가라고 그래서 맞춰서. 그냥 서울은 가기 싫고. 금융권 취업이 좀 된다고 해서 금융권이 잘 버니까 그래서 갔어요.” (청년 17)

청년의 꿈을 지원한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들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많은 청년지원 정책들이 가구 단위의 자산조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 부모에게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가구의 자산조사 기준에는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청년 2는 “부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는 게 많아서” 각종 정책에 응모하지 못했다. 청년 9는 “디딤돌 카드를 신청했는데”, “아버지가 차가 있고, 저도 출퇴근용 차가 있어서” 지원받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집도 은행 건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불만스러워했다. 국가 제도를 살살이 살펴 보았다는 청년 6은 부모에게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한다.

“(국가 제도를) 거의 다 살펴보고 엄청 많이 신청해보긴 했지만, 뭔가 기준 미달로 거의 박탈만 다 됐던 것 같아요. 그 34세 미만 돈 준다는 건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 부모님 재산과 계속 연관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은 저희한테 돈 지원을 거의 안 해줬는데.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교를 각자 돈 벌어서 갔거든요. 근데 부모님 재산으로 인해 국가장학금도 다 자격조건 미달로 안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청년 6)

둘째, 청년들이 꿈으로 추구하는 일이 현실에서는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청년 1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댄서 자체가 프리랜서고 돈을 어디 한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서 인증하기도 쉽지 않고”, “그게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소득증빙이 안 되니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였다.

셋째, 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임금 노동을 지원의 조건으로 하는 정책은 어떤 청년들에게는 접근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된다. 청년 10은 “일자리(정책)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랩이나 이런 음악이 일자리를 통해 지원되지도 않고, 직업 활동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또 다른 진입장벽이 있다.

넷째, 지원 자격의 기준이 너무 높다. 일정한 성취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들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지원해 볼 수 있다. 청년 2는 예술인 등록을 하려면 “싱글 음원이 있어야 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것도 돈이 들어서” 원서도 낼 수 없었다. 청년 4는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응모하려면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갖추는 것부터 돈이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워요). 지원자격 보면 ‘개인전 2회 이상’이라든지, ‘수상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난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 개인전은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 없으면 전시를 할 수 없는데.” (청년 4)

다섯째, “정말 운 좋게”⁵⁾ 청년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게 되면, 수많은 조건들을 감내하며 그것을 충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청년디딤돌카드 지원을 받은 청년 1은 “매달 50만 원씩 받기는 했는데”, “매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고, “오직 미래를 위해서, 계획서에 쓴대로 다 똑같이 써야 하고”, “인증하고, 영수증도 내야” 하는 조건들이 “꽤나 까다로웠”다고 말한다. 특히 지급된 포인트는 자격증,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도서구입, 면접복장 구입, 식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정해져 있다. ‘사회진입활동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은 결국 취업 지원으로 축소되고,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통해 모든 것을 확인하고 통제한다. 청년 9에게 재활치료는 종합격투기 선수라는 꿈 실현에 매우 중요한 투자인데도 “취업에 필요한 것만 쓰는” 청년지원책에서 “재활은 안”되는 거였다. 청년 10은 창작지원금을 받았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한다.

“창작지원금을 받아본 적 있는데. 지원금이니깐 영수증 증빙도 해야 하고. 커피를 사먹는데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결과물도 있어야 하고. 그걸로 생계 유지를 하기도 어려운 거고.” (청년 10)

(3) 불안정해지는 몸과 마음, 번 아웃

결국 꿈을 실현하는 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생계비와 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했다. 청년 9는 “알바 안 하면 생활이 아예 안 되”었고, 청

5)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청년 13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공연인력 지원사업에 뽑혀 6개월 동안 월 1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서, 2천 명을 뽑는데, 7~8천 명”이 지원했으나, 보통 운은 안 되는 일이다.

년 1은 “뚜레쥬르, 중국집, 정관장 행사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청년 8은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다. “전역하고 나서 안 해본 일이 없”고, “그 돈을 모아서 앨범도 냈”(청년 10)다. 생계노동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자기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청년 6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며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조선소의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졸업 후 식품 계통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학과 선배들도 실직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생계가 막막해지자 식품 관련 꿈을 접고 타일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의 고군분투를 이렇게 설명한다.

“제가 00대를 나왔는데. 공대라 학비가 430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에. 생활비랑 하면 한 학기에 7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생활이 전쟁이었어요. 돈을 충당해야 다음 학기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방학만 되면 거제 조선소에 갔죠. 조선소에서 대학생이 된 일을 하겠어요. 제일 비싼 일을 시켜달라고. 고소작업을 해야 하면 고소작업을 할 수 있게 발판 쌓아주는 역할이었어요. 배가 워낙 크니까 공중에서도 발판이 만들어지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좀 많이 무섭긴 했는데.” (청년 6)

“그냥 진짜 돈이 딱 막히니까. 막노동이라도 나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타일 일 시작하기 직전예요. 도대체 뭘 해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사람이 찾게 되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어디 공사장도 가볼까.” (청년 6)

생계노동과 꿈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호소한다. 청년 14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기를 데리러 가”고, “신나게 놀고, 먹여야 하고, 치우고, 씻기고 해야 하”려니 “몸도 마음도 힘들었”다. 청년 9는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알바하고,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저녁 운동은 동네에서 하고 그러고 집에 가면 12시고. 너무 피곤했”다.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눈이 빠질 것 같은 거예요”(청년 1)라고도 하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겨우겨우 버텼던 것 같”(청년 11)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는 느낌 정도로 빠듯했”(청년 6)다고도 한다. 청년들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꿈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역경이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놔 버리고 싶은 번 아웃을 경험하게 된다. 청년 1은 “몸도 약하고, 체력도 안 좋은” 자신이 “알바를 하면서 정신적, 체력적으로 지치니까”, “춤을 안 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년 2는 “과부하가 걸려서, 완전히 방전이 됐”고, 청년 3은 생계유지는 되지만 “(본업, 꿈에) 집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팍 뻗었”다. 청년 11은 꿈과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수면시간을 줄이다 보니 “힘을 낼 의지조차 없어지”는 상태가 되었다.

“약간 (자기)개발에 미쳐있어서. 힘들어도 버티고. 그랬던 시간인데. … 3시간 잔적도 있고. 밤을 새기도 하고. … 원래 잠이 많은데. 막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 이제는 힘을 낼 의지조차 없어지니까. 계속 잠으로. … 24시간 잔 적도 있고.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항상 잠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청년 11)

(4) 반복되는 포기, 우울, 자책, 죄책감

번 아웃에 이르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유일하게 아낄 수 있던 게 식비”인 상황에서 청년 16은 “꿈에 대한 투자는 역부족”이라고 느꼈다. 결국 “현실을 고민하다보니”(청년 9)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청년 6)지고, 꿈을 향한 투자를 하나하나씩 “포기”(청년 13)하기에 이른다. 꿈에서 떨어지는 신호다. 청년 10에게 앨범을 내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일은 꿈을 향한 전진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큰 비용은 그나마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생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니 용기를 낼 수 없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요. 앨범을 안 내면 안정적인데. 앨범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불안정해요. 제가 지금 32살이거든요. (랩을 시작한) 25~6살부터 비트도 사고, 믹스마스터링비.. 한 곡 기준으로 보통 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음원 사이트에 백 몇곡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거의 몇 천만원 들어간 거죠. 뮤비 찍는다고 하면 한 곡당 최소 300만원 선에서 시작하고… 지금은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로 번 수입은 제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고. 앨범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균형이 깨져버려서 조심스럽고.” (청년 10)

청년들의 경험에는 꿈을 이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에 자신을 재촉하는 모습도, “압박감을 느끼는”(청년 1), “우울감을 느끼는”(청년 13) 모습도 포착된다. 청년 7은 주변에서 비슷한 꿈을 꾸는 청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다들) 이미 배우고 습득하는데”, “나는 지금 아니면 언제” 배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뒤로는 더 시간이 없을텐데”,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이라 “조바심이” 든다고 말했다. 청년 16 역시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럽긴 하고, 자신도 없어진”다고 고백한다.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배우지. 그 뒤로는 시간이 더 없을 텐데.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조바심도 있고. 주변에 음악 하는 애들 보면 다 이렇게 배우고 습득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음이 되게 급하고. 진짜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엄청 들어서.” (청년 7)

이런 감정들은 자책과 죄책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년 8은 “뭔가 하나를 완성하지 못했다

는 콤플렉스”를 갖게 됐으며, “나는 뭔가 끈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청년 5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난이 아이들에게도 대물림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인다.

“여유가 없으니까 날카로워지고. 가장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경제력에서 나오니까. ...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아빠면 좋겠지만. 우리 가정 환경에서 나는 이걸(함께 시간을 보낼 수) 할 수 없다는 게. ... 그런데 그걸 못 해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거든요.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애들을 낳았나. 이 애들이 나중에 가서 엄마, 아빠가 가난하면 애들도 가난할텐데. 어찌면 좋노.” (청년 5)

(5) 포기할 수 없는 꿈, 이리려고 사는 게 아닌데...

이런 과정을 거치며, 꿈을 꾸는 일은 말 그대로 ‘꿈’으로 남게 된다. 그럭저럭 ‘삶’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꿈이 된다. 청년 4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았”다며 “라면 하나 사먹을 돈이 없는데 꿈에 대한 투자나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말한다. 재미와 고유성을 찾고자 했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누군가에게 추천하지 못 할 일”(청년 9)이 되어버린다. 청년 16은 “미래에 대해 잘 상상하지 않”고, 차라리 “로또를 받는 걸 상상한”다. 그만큼 꿈은 “너무 먼 일”, “괜한 욕심”,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스트레스”로 남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수많은 좌절과 반복을 거쳐 꿈은 더 이상 상상하지 말아야 할,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다. 이제 “(무언가에) 관심을 갖지 않”으”(청년 16)려고 노력한다. 그에게 꿈은 “오늘 하루 잘 사”는 것, “다 무탈했으면 좋겠”고,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축소된다.

“미래에 대해선 잘 상상하지 않아요. 로또 받는 건 상상해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런 느낌. (미래를 생각하면요?) 스트레스죠. 이룰 수도 없고. 고민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이나 무탈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아파서 돈이 안 들어가면 좋겠고. 일도 나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사실 마땅히 하고 싶은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못할 걸 알아서? 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거 하면 돈, 시간이 드는데. 내 체력은 여기까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비용도 조금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깐 그냥 생각을 접어 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 괜히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또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애초에 거기에 좀 투자할 여유가 없으니깐. 아예 안 보고, 관심도 안 가지고.” (청년 16)

그렇지만 꿈을 포기하고 생계노동에만 매달리는 삶은 그 자체로 고역이다. 청년 17은 “재미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기도 했”던 심정에 “진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느꼈고, 청년 15는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열악하고 “의미 없는 노동”을 해나가며 “내가 이리러

고 사는 게 아닌데”하는 회의와 허무를 느끼며, “이러다 사람이 죽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현실에서 청년들은 꿈을 추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5. 기본소득과 꿈

재미와 고유성으로 표현된 청년들의 꿈은 달콤하지만, 현실의 벽은 매우 높았다. 청년들은 꿈을 갖고, 의지로 버텨내고 있었지만 불안했고 좌절했다. 번 아웃을 향해 치닫는 청년 중 어떤 이는 꿈을 사치라고 했고, 어떤 이는 꿈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라고 했다. 앞서 살핀 청년의 꿈 서사는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꿈을 쟁취하는 해피 엔딩보다는 새드 엔딩을 향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만났다. 벼랑 끝에 몰려 있던 청년에게 기본소득은 “한 줄기 빛 같아서”(청년 5) 무조건 잡아야 하는 기회로 느껴졌다. 청년 7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손목을 수술하려고 “입원했을 때” 기본소득 실험 대상 모집공고를 접했다. “팔에 붕대를 감고 (SNS에 접속하여) 기본소득 실험에 지원”했다. 청년 11은 “기본소득에 당선됐다는 걸 알고 너무 신나서 필쩍필쩍 뛰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7개월간의 ‘무조건적 환대’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절에서는 청년들의 꿈이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제를 만나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들의 언어로 따라가 본다.

1) 꿈을 향해 꿈틀대는 몸과 마음

(1) 안 하던 것, 못 하던 것을 시도해 볼 용기

아무 조건 없이 어디에나 써도 되는 기본소득은 억누르고, 포기하고, 외면했던 관심사, 재미, 고유성에 눈을 돌릴 수 있게 했다. 억눌러 왔던 욕망을 드러내고, 시도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장(場)이 된 것이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스트레스”라서 “꿈을 꾸지 않”는다고 했던 청년 16은 “특가가 아니더라도, 좋은 상표의 닭가슴살이나 프로틴을 먹어보는” 일, “관심 있던 브랜드 옷을 사는” 일, “엄마와 처음으로 정동진을 가보는” 일,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아보는” 일에 기본소득을 썼다. 청년 16에게 이런 경험은 비용 대비 얻는 것의 가치를 가늠하느라 “늘 생각만 하던 것”을 “그냥 해보자”는 용기로 발현했다.

“생각만 하던 것을 실천해 볼 수 있었어요. 먹고 싶었던 것을 먹어본다든가. 관심 갖던 옷이나 그런 것도 기본소득이 있으니깐 좀 살까. 엄마랑 정동진에 1월1일 다녀왔어요. 원래는 여행을 거의

못 갔는데. 제가 해보러 가고 싶다고는 했는데. 정동진 좋다고 해서. '나 아직 안 가봤는데...' 그러다가, 기본소득이 있으니깐 마음 편하게 '그냥, 가보자' 그런 느낌. 전이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만한 (돈의) 가치를 거기서 느끼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돈하고 시간 투자했는데 별로면 어떻게 하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해보자. 약간 이렇게." (16)

청년 18 역시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기본소득을 받기 전에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막연하게나마 보호시설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면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키워왔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반려견 수제 간식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게 됐고,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원데이클래스를 들었”는데 “너무 괜찮아서, 집에 가서 생각하다가, 학원을 등록했”다. 청년 13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에게 여행은 그 시간 동안 돈도 못 벌면서 돈을 써야 하는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었다. 그는 기본소득으로 “막연한, 그냥 너무 다른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해외여행을 시도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의 동력을 얻”었다. 새로운 발견이다.

“보통 직장인도 휴가가 있고 방학이 있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예 없었거든요. 일단 시간이 없다고 계속 생각을 했고, 여행을 가는 시간 동안 또 돈을 못 받는데, 가서는 돈을 써야 되고, 이게 전부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니까. ‘나는 그냥 못 가지 않을까?’ 막연한, 그냥 가고 싶어도 없었고, 아예. 그냥 너무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거의 이 (기본소득) 프로젝트가 끝나갈 즈음에 마음을 먹었죠. 그냥 비행기 그냥 끊어버리고, 유니버설 티켓 끊어버리고. 해외를 나가버리니까 더 아무 생각 없이 딱 그게 끊기게 되잖아요. 뭔가 일상이랑 완전 다른 데서 그냥 혼자 떨어져서 있는 거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진짜 리프레시가 많이 되고, 더 동력을 얻은, 돌아와서 더 이렇게 더 하게 되고, 그런. (기본소득을 못 받았으면) 할 엄두를 아예 못 냈을 것 같아요.” (청년 13)

(2) 꿈 실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많은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었다. 기존 많은 청년 지원정책들은 돈을 받는 대가로 시간을 가져갔다. 노동이나 취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기본소득은 돈과 시간을 같이 받는 것을 의미했다. 먼저, 기본소득으로 꿈 실현에 필요한 기자재를 마련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청년 10은 기본소득으로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 돈을 보태고, 비트를 구입”했다. 만약 본인이 생계노동을 하면서 이만큼의 비트를 구입하려면 “1년 반 이상이 걸”릴 일이다. 청년 3은 춤 추는 모습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노트북을 샀”다. “알바나 춤으로 노트북 값

300만 원을 벌려면 오래 걸”리니 매번 “사야지 마음만 먹고 못 샀던” 것이었다. 그만큼 “목표를 실천하는 데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시간 확보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생계노동을 줄일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청년 3은 “주 5일 알바를 4일로 줄였”고, 청년 9는 “운동에 투자할 때라고 생각”해서, 청년 5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지금 하는 생계노동 시간을 줄였다. 그만큼 꿈을 향해 애쓰는 시간을 늘린 것이다.

기본소득은 가성비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기도 했다. 청년 6은 “500만 원에 달하는 공구를 사려면 엄청 부담이 되”었다. “사고 싶은 게 있지만,싼 제품과 계속 고민했던” 과거와 달리, “기본소득이 있어 바로 사고 싶은 걸 사게 돼서 선택을 주저하는 시간이 없어”졌다.

청년들은 이렇게 확보된 ‘시간’에 본인이 기획한 꿈의 실현을 위한 노동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청년 8은 “(기본소득을 받는 동안) 글만 쓰고, 홍보하고, 책 디자인 하고, 퇴고하고 그런 과정”에 집중했다. 청년 3은 “하루가 생겨서 그 시간에 모델 친구들도 부르고, 촬영 친구들도 부를 수” 있어, “못 했던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청년 6은 “계속 타일 자르는 연습”을 했으며, 청년 7은 “하루 종일 신나게 연습도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것도 했”다.

생계노동에 대한 부담이 줄자, 피곤함이 확실히 줄었다. 이것은 꿈을 실현하는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청년 17은 기본소득으로 확보한 돈과 시간으로 “충분히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피곤함을 덜 느꼈다.” 청년 9는 “시간이 비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누워 있는”다며, “예전에도 잠이 많았는데, 그걸 억제했던 것 같”다고 깨닫는다. 당연히 “폭 자고 가면 컨디션이 정말 좋”다. 청년 17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 돈과 시간이라는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였다.

100만 원이면 시급 만원으로 따지면 100시간이거든요. 한 달에 그 시간이면 충분히 잠도 더 잘 수 있고. 밥 사먹을 수 있으니까. 차리는 시간도 남고. 진짜 큰 거거든요. 뭔가 삶이 바뀌는 느낌. 그게 가능해서 성적도 잘 나왔거든요. ... 피곤함도 덜 느껴요. ... 장학금도 받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알바도 안 해도 되고, 인프라 자체가 무기니까” (청년 17)

(3) 내 꿈에 투자하기

청년들은 기본소득이 받으면서 자신의 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들 중 일부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학원에 등록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내구재들을 구입하기도 했다. 청년 13은 노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레슨을 받기 시작했고, 무용(필라테스, 발레)학원에 등록했다. 청년 7은 보컬학원에 등록하고 기타도 배우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은 정말 ‘내

돈'이라서 부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꿈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었다.

“엄마가 내 돈으로는 절대 (보컬학원에) 못 다니는데, ‘네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본소득은) 제가 받은 제 돈이니까 편하게 쓰니까 터치 못 하잖아요. … 노래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100만 원 받아서. 일단 학원을 끊고. 돈 조금 남은 걸로 미리 결제해도 된다고 하셔서. 남은 거 모아줬다가 마지막 달에 그 다음 달 것도 미리 결제해서 조금 더 다녔어요. 그 뒤로는 손도 낫고, 지금은 일해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제가 벌어서.” (청년 7)

청년 15는 꽃 재료비 걱정 없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었다. 전통주 창업을 꿈꾸는 청년 12는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싼 걸로 했을 텐데, 기본소득이 있어서 가격이 몇 배가 되”는 “좀 제대로 된 향아리”를 “사이즈 별로” 구입했다. 청년 9는 체력을 보강하는 데 기본소득을 투자했다. 그는 재활치료를 매주 받으며, 출전용 바디프로필을 찍었고,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으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닭가슴살만 먹었던 걸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뛸 수 있었다. 래퍼를 꿈꾸는 청년 10은 집이 곧 작업실이라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 집 이사에 기본소득을 보탤다. 청년 6은 타일 일에 필요한 개인 장비와 중고차를 마련하였다. 집에서도 타일 일을 연습할 수 있게 되어 빠르게 실력을 높일 수 있었다. 청년 4는 “돈 걱정 없이” 캔버스를 구입했다. 노트북과 (미술관련) 소프트웨어도 구입했다. 청년 1은 춤추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고프로”와 “노트북”을 사고, 동영상 촬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방의 인테리어도 바꾸었다. 아팠던 무릎 MRI 촬영도 했다.

“처음에는 고프로를 샀고요, 노트북이랑. 무릎이 안 좋아서 MRI 찍는데. 116만 원 나오더라고요. … 방 인테리어도 했어요. 안방 장판이 노란 장판이잖아요. 거기서 영상을 찍으면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인테리어, 벽지도 흰색으로 칠하고. 원래는 누리끼리한 실크벽지 그런 거였거든요. 밑에 바닥도 깔고. 되게 예쁘게 꾸몄거든요. …삼각대를 설치해서 옥상이나 이런 데서 영상을 찍었어요.” (청년 1)

2) 꿈-자본의 씨앗들

기본소득을 꿈에 적극 투자할 수 있었던 청년들은 꿈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니, 다시 한번 더 열심히 꿈을 꿀 수 있는 자기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의 경험에는 꿈-자본의 하위개념들인 희망, 낙관, 상상력, 회복탄력성에 대한 서사가 담겼다.

(1) 자기 확신

청년들은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늘 상상만 해오던 꿈의 실현 가능성을 맞볼 수 있었다. 청년 7은 “해야 할 것만 하면서 사는 삶이랑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고, 해야 할 것도 챙기는 삶”의 차이를 실감했다. 기본소득은 도전도 못해보면서 쌓였던 “갈증”을 달래주었다. 청년 12도 “그 전에는 욕심이 없었는데, 기본소득을 경험하고 나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며 “한 단계 더 나가면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참고. 해야 할 것만 하면서 사는 삶이랑 하고 싶은 거 편하게 하고, 해야 할 것도 챙기는 삶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돈(기본소득)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답답한 거랑, 배우고 싶은 열망을 다 풀어줬으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 도전도 못해보니까 갈증도 계속 심해만졌을 거고. 이 기회(기본소득) 덕분에 더 많이 배우고, 열정적으로 일할 구석도 찾아보게 되고.” (청년 7)

또한 청년들은 이 경험이 커다란 성취 여하와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낙관성, 희망, 회복탄력성의 서사로 이어진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 미래에 대해 갖게 된 희망, 난관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청년 8 역시 장편소설 쓰기에 전념했던 시간을 통해 “뭔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콤플렉스”와 “끈기가 없는 것 같”았던 자기 평가에서 벗어나 “명석이 깔리니까 할 수 있구나”하는 자신감을 얻었다. 청년 4는 “고민하고 미루던 성격”에서 “안 될 걸 알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던 청년 15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것이 성취감이 있”다며 “힘드는데 해냈고, 하나씩 괜찮은 마음이 들”고, “삶에 대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진 것 같다”고 한다.

“저는 그 프로젝트가 저한테 엄청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7개월 동안 받으면서, 졸업부터 시작해서, 길이 확 틀어진 것 같아서. … 좀 계속 고민하고 미루던 성격에서 일단 해보고, 던져보고, 안 될 것 알지만 시도해 보고. 이런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 만족하고. 개인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시도하고,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청년 4)

“원래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게 있었어요.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서 1인분 뭇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려고 있어도 되나,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완성 해냈다. 포기하지 않고. … 성취감도 있고 … 목표가 생기고 … 자기만족이 더 큰 것 같아요. 잘 됐다고보다 … 기본소득을 받아서 좀 더 도전을 해볼

수 있었다. ...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청년 15)

(2) 가시적 성과, 주위의 인정과 늘어난 소득

기본소득을 통해 확보된 시간과 유무형의 투자는 청년들의 꿈 실현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청년 7은 기본소득으로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래 실력이 한층 나아졌다고 말한다. 청년 6은 기본소득으로 구입한 타일 절단 장비로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했고, 실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소득도 늘릴 수 있었다.

“못 배웠던 것 배우고. 처음에 노래도 부르고 싶은대로 부르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호흡하는 방법, 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발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음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런 세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아지는 게 보여서.” (청년 7)

“저는 제 장비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남는 타일은 제가 싸그리 싸들고 와서 자르는 연습만 했어요. 그렇게 자르는 걸 잘 하다보니까 사수가 이것도 잘라달라, 저것도 잘라달라 부탁을 하면서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청년 6)

청년 1은 기본소득으로 카메라와 노트북을 사서 춤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제가 산 카메라가 좋은 편이라, 영상 퀄리티도 좋”아졌기 때문에, “제 색깔을 내고 싶어서 컨셉을 정해서 영상을 찍는다든지, 옷을 더 드러나게”, “광고 찍듯이 영상을 찍었다. 이런 영상을 통해 “저만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느꼈다. 이 영상들을 해시태그를 걸어서 SNS에 올렸고, 각종 회사로부터 “의류 협찬”이나 “광고” 의뢰를 받을 수 있었다. 청년 8은 기본소득을 받는 동안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소설 탈고에 집중”해 “한 번도 완성해 본 적 없던” 장편소설을 완성했다. “독립서점에 입고하진 않았지만, 공모전에” 제출하였고, “공모전에 당선된다면, 대형출판사를 끼고” 출판하게 될 것이다. 청년 10에게 “음악적인 성공은 어떤 회사(소속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음악 작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런 기류가 요새 조금 있”다. “어떤 회사의 영상 촬영하는 분이 제 공연 모습을 촬영해” 간 것이다.

(3) 지원군을 얻은 꿈꾸기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청년들이 갖게 된 자신감과 크고 작은 성취는 청년들이 부모와 좀 더 당당하고 대등하게 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다. 성공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불안해하고 지레 실패를 점치기도 했던 부모들도 청년들의 열성적인 꿈 추구 활동과 이를 통해 얻은 작은 성취들에 주목하며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청년 1의 아버지는 시종일관 댄서 일을 반대했지만, 청

년 1이 보여준 일련의 성취 이후에는 “자식 사랑을 하고 다니”는 아버지가 되었다. 청년 10은 “힙합이 돈이 되냐는 질문”을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부모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도 자신을 음악인으로서 인정해 주는 느낌이다.

“옛날에는 그게(힙합이) 돈이 되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노래를 들으면서 다니시거든요. 피드백도 해주시고요. 제가 첫 번째 공연할 때 초대도 했어요. 뭔가 울컥한 기분. 아버지가 그 무대를 보시고, 잘 해보라고 이렇게 완전히 놓아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지내니까 부모님이 더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앨범이 언제 나오냐고 묻기도 하시고. (주변 반응이) 예전에는 막연하게 좀 ‘음악 하면 잘 되겠나’, 이거였는데, 요새는 그냥 ‘왜 안 되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뮤지션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네요) 네.” (청년 10)

청년 7은 가수를 꿈꿨지만, 엄마는 취업이 보장되는 간호학과를 강요하여서 둘의 관계가 틀어졌었다. 기본소득으로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며 노래 연습을 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보게 된 엄마는 노래하는 딸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갔다. 엄마의 지지로 인해, 자연스럽게 모녀관계도 회복되고 있다.

“만약 학교(간호학과) 계속 다녔으면 엄마를 엄청 원망하고, 감정이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안 풀렸을 것 같은데. ... 진짜 웃긴 게 저 기타 연습하고 있으면 엄마가 옆에 와서 영상 찍어요. 되게 좋아해요. 저한테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러면서 ‘이쪽도 찍자’고. 엄마가 보기에 맨날 죽을상하고 공부만 하던 애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즐거워 보이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오디션 볼 때 ‘엄마 이거 할 건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 엄마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거기서 힘을 조금 더 빼고, 표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영어 노래 없나, 조금 더 밝고, 리듬 있는 거 없나’하고요. 지쳐서 있으면 옆에서 ‘니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된다’ 이러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청년 7)

6. 결론

연구참여자들은 꿈을 포기한 세대, 희망이 없는 세대, 좌절의 아이콘이라는 청년 담론의 홍수 속에 오롯이 버티는 동안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만났다. 하나의 실험으로서 일정한 선정 절차와 기간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돈의 사용처를 정하거나 특정한 성과의 제출을 강제하지 않는 무조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 기회에 무려 3천 명이 지원했다. 좌절의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임에도, 이들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여전히 꿈을 간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을 뻗어 꿈을 좇고자 하는 청년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는 그러한 청년들의 꿈의 서사에 주목했다. 생존주의에 매몰된 피로사회의 틈을 넘어 행위 주체의 자율성과 삶의 다면성을 깊이 들여다볼 때야 잠재적인 꿈의 자원들이 드러날 것(김홍중, 2018: 20)이며, 그 자원들이 외부적 조건과 맞물려 구성, 교섭, 변형되는 서사야말로 이 시대 청년의 꿈 실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꿈의 의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 묻고, 기본소득이라는 무조건적 환대가 꿈의 서사에 주는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그들의 꿈은 댄서, 래퍼, 화가, 작가, 가수, 뮤지컬 배우, 종합격투기 선수, 패션 디자이너, 전통주 장인, 플로리스트, 펫푸드 창업, 요식업 창업, 좋은 엄마 또는 아빠, 별 탈 없는 내일, 여유로운 삶 등으로 호명되었다. 꿈은 단지 장래 희망이라 불리는 직업으로서뿐 아니라 삶의 태도와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꿈은 무의미한 것만 같던 삶에 재미를 부여하고 자기만의 고유성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꿈은 그저 흘러가는 삶을 원하는 삶으로 전환할 추동력이 되었다. 삶의 목표가 된 꿈이 현실의 막막함과 고단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형 자본’(김홍중, 2016)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꿈-자본을 구성하고 실현하는 서사는 비극에 가까웠다. 가족과 사회의 지원은 모두 평가와 경쟁, 조건을 내걸었다. 성공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부모에게는 “꿈 같지도 않는 꿈”이라 외면당하고, 이미 일궈낸 성공의 증표를 혜택받을 자격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정책에서는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준 돈 만큼의 시간을 빼앗거나, 남들이 결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춰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조건 앞에서 청년들의 꿈은 홀로 견디어 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이었다. 그들의 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들은 생계노동과 꿈이 분열된 상황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부은 발의 김스를 풀어가며”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어 생계를 이어갔고, 그렇게 모은 돈의 일부를 푼푼이 모아 꿈에 투자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어느 순간에는 넘어졌고, 어느 순간에는 “지친 몸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그럼에도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야말로 “오만 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벌이로는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벅찼다. 꿈은 점차 꿈, 사치가 되어 가고 있었다. 조바심과 압박감에 자신을 다그쳐 보지만, “숨이 안 쉬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피폐해짐을 경험했다. 어느새 “힘을 낼 의지”조차 잃어버린 이들에게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던 꿈은 어느새 “괜한 욕심”,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아낄 것이 식비밖에 없었다”는 청년의 고백은 N포세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설부른 포기로 간주하고, ‘노오력’하라는 조언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초현실적인지를 드러낸다(김선기, 2019).

꿈-자본의 수준이 낮았던 청년들에게 7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의 부산 청년기본소득이 제공되었다. 이 실험은 청년들의 꿈-자본을 그전과는 다른 환경과 맥락에서 변형시킬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기존의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근로 기반 복지 혹은 성과 기반 복지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청년 기본소득 실험은 근로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성공 가능성을 확인(양적 성과물의 제출)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청년 지원 정책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명시된 돈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달리, 지급된 돈의 용처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삶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액수의 현금을 준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은 “사치”라고 여기며 물어 두려 했던 꿈을 다시 펼쳐냈다. 그 양상은 참여자마다 다양했다. 꿈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청년들은 자신의 취향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도를 했다. 가고 싶었던 것을 사보고,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고, 무엇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았다. 하고 싶었던 일이 비교적 명확했던 청년들은 생계노동 시간을 줄여 꿈의 실현에 시간을 썼다. 꿈 실현을 위해 더 배울 수 있는 학원에 등록하고, 돈 걱정 없이 재료를 써가며 연습하고, 꿈 실현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를 구입하고, 작업환경을 바꾸었다. 적어도 기본소득을 받는 7개월간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꿈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실패해도 된다는 여유를 잠시 부러볼 수 있었다.

그런 7개월을 거쳐 청년들은 저 멀리 추상에 가까웠던 꿈-자본을 상향시키는 경험을 했다. 자신의 꿈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다음 단계의 도전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었다.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꿈을 인정받는 경험은 다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제, 멀게만 느껴졌던 꿈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꿈과 꿈-자본의 서사는 청년을 ‘N포 세대’, ‘사토리 세대’⁶⁾로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단선적이고 폭력적인 관점임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기 위해 애썼고, 온전하지 못하고 조건적인 공적·사적 지원망 안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소진되었음에도 꿈을 포기하지 못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었다.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청년들의 서사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꿈-자본의 구성, 교섭, 실현, 변형의 과정에서 기본소득 방식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꿈은 개인의 심장을 뛰게 하지만 개인의 의지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자본은 개인의 열망과 의지가 외적 조건들과 결합하면서 구성된다. 경제자본이 전제되지 않으면 꿈-자본은 구성되지 못한다.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꿈-자본의 외적 요인인 경제자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있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

6)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일본의 젊은 세대들로 돈벌이, 출세, 연애, 여행 따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출처: 네이버국어사전. (nd). 사토리세대.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a538ba0500c4d73a2705139dc5f7677> (최종접속일: 2023년 11월 20일).

고 “인프라 자체가 무기”라는 청년 17의 통찰은 기성세대와 정부에게 던지는 뼈아픈 경고다.

둘째, 가구 단위의 자산조사, 앞선 성취를 전제로 비로소 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는 정책, 전형적인 형태의 임금 일자리에 치중된 정책, 돈을 주고 시간을 빼앗는 정책, 허락된 항목으로만 지출할 수 있고 끊임없이 증빙처리를 해야만 하는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어렵다. 최근 상당수의 청년 정책들이 취업률, 취업성공률, 중도탈락률 등의 양적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좌초되거나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실험의 청년들이 보여준 것처럼 자유와 창의성을 일정한 조건들에 얽어매는 지원 하에서는 청년들이 꿈-자본을 구성하고 실현하기 어려웠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청년들의 꿈-자본이 개인의 열망과 의지의 내적 요인과 경제자본, 문화자본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결합할 때 외적 요인이 내적 요인을 제약하지 않도록 돕는다.

셋째, 기본소득의 개별성은 청년들의 꿈-자본을 구성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열망과 의지가 작동하는 기반이 된다. 청년이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부모의 지원은 다양한 이유로 온전하지 않았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뿐 아니라 부모가 성공을 저울질하면서 느끼는 불안, 일과 직업에 대해 가지는 편견, 부모 자신이 가진 선행 경험은 자식의 꿈을 온전히 응원하지 못하게 만든다. 청년이 꿈을 추구하려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 스스로 결정하여 자기의 꿈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꿈꾸는 청년들에게 생계노동과 꿈 실현을 위한 활동은 분열되고 충돌했다. 생계노동으로 꿈 실현을 위한 시간이 고갈된다면, 청년들은 꿈-자본을 구성하고 실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꿈-자본을 실현하고 상향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라 하더라도 없는 경우보다는 꿈-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유영성 외, 2019; 2020), 꿈-자본을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한 청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꿈을 실현하고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저 시급을 받는 청년들의 기준에서 월 100만 원은 꿈의 실현을 위한 ‘월 100시간’으로 기능하며 생계노동의 의존도를 낮추고, 꿈-자본을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청년들의 꿈-자본의 구성과 상향을 위한 기본소득은 청년의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을 넘어, 생계노동 의존도를 낮춰줄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사회 곳곳에서 청년이 호명된다. 청년 세대가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년들은 삶을 불안정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서도 각자 고유한 꿈과 고유한 삶의 방식과 형태를 그린다. 현재의 사회정책이 이들의 고유성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면 기존 정책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는 것, 그러한 상상과 노력은 우리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규혜, 이승윤, 박성준. (2020). '취업'과 '실업'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7(4), 49-85.
- 김석호, 주윤정, 성연주, 김지애, 김은지, 이상규, 김홍중.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24, 289-331.
- 김석호, 정우연, 조하영, 김지윤, 김두환. (2019). 한국인의 꿈 자본과 가족관계의 질: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31(2), 1-57
- 김선기. (2019). 청년팔이 사회. 경기: 오월의 봄
- 김성희. (2015).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노동연구, 31, 5-37.
- 김영순. (2013). 경남 청년층 고용 현황 특징과 시사점. 경남정책, (10), 1-12.
- 김영재, 정상완. (2013). 한국 역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비교 연구. 취업진로연구, 3(2), 1-20.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정훈, 심나리, 김향기(2019). 386세대유감: 386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 고의를 묻다. 웅진지식하우스
- 김지혜, 정익중, 조윤희, 남미정. (2023). 한국 사회 청년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가?: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꿈 준비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4(3), 67-102.
- 김찬중, 이규상, 노재구. (2009). 지역 청년실업 해소방안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경영, 22(1), 265-285.
- 김초롱, 오세일. (2017). 대기업 청년 퇴사자의 진정성과 자기계발. 사회이론, 51, 103-139.
- 김홍중. (2015a).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부르디외와 벤야민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8, 32-72.
- 김홍중. (2015b).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김홍중. (2016). 진정성의 수행과 창조적 자아에의 꿈: 시문학동인 P 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50(2), 199-229.
- 김홍중. (2018). "꿈의 사회학 서설". 박명규 외. 꿈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 명수민, 이영룡. (2015).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생협평론, 19, 41-57.
- 바우만, 지그문트. (2009).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서울: 강.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 박명규, 김홍중, 구도완, 구자혁, 김학재, 김혜경, 박해남, 배영, 신경아, 이현송, 주윤정, 최종렬. (2018). 꿈의 사회학. 경기: 다산출판사
- 박성준. (2005). 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5(2), 1-43.
- 박송이. (2019). 청년의 노동-꿈의 괴리, 소비태도에 대한 헤아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7-203.
- 박정희. (2006). 인간의 마음과 행위 그리고 지향성. 철학논총, 45, 163-183.
- 박해남, 박미희. (2021). 다중격차 시대 지역 청년의 자본과 아비투스. 경제와사회, 55-87.
- 서정희, 이지은. (2021).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사회보장연구, 37(4), 5-40.

- 서정희. (2019).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쉽표 프로젝트’ 효과. 비판사회정책, (63), 101-146.
- 서정희, 조미정, 박경하, 김병조, 서두산. (2019).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 서현수, 최한수. (2020).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스칸디나비아연구. 26, 1-45
- 성연주, 김지애. (2017).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61-175.
- 신경아. (2017). 20대 여성의 새로운 노동정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6(2), 81-124.
- 안효상, 서정희. (2021).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비판사회정책, (73), 79-117.
- 야마다 마사히로(2010). 희망 격차사회: 패자그룹의 절망감이 사회를 분열시킨다. 최기성 옮김. 아침.
- 오유진, 김교성. (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 오재호, 이상훈, 천영석, 박누리, 김강호, 이하은(2019). 경기도 청년 비전형(非典型)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 방안. 경기도의회.
- 유영성, 김재신, 백승호, 한치록.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I) :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수원: 경기연구원.
- 유영성, 김태영, 이홍재, 서정희, 조광자, 김진호, 최기훈.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IV). 수원: 경기연구원.
- 유영성, 윤성진, 정원호, 김재신, 마주영,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조문영, 한치록, 김미리, 이지은.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II):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수원: 경기연구원.
- 유영성, 정원호, 이관형, 마주영, 김교성, 서정희, 이지은.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수원: 경기연구원.
- 윤윤규, 김유빈, 오선정, 강동우, 김세움. (2017). 청년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 ‘정형화된 사실들’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선영, 신현기, 정종원.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54(3), 225-252.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현서, 심희경. (2016). 청년층 이직과정에서 나타난 일 경험과 일의 의미. 문화와 사회, 22, 283-348.
- 장민. (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 VIP 시리즈, 9, 1-60.
- 전명숙. (2018).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연구. 산업노동연구, 24(2), 215-245.
- 정우연, 조하영, 김석호. (2022). 무엇이 청년의 꿈을 가르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내용 차이. 조사연구, 23(1), 107-130.
- 조문영, 조민서, 김지현. (2021).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한국문화인류학, 54(1), 307-358.
- 조문영. (2018). 윤리적·창의적 기업이 주체의 정치적 재구성: 중국 도시 청년들의 사회혁신 (창신) 창업 활동에 대한 일고찰. 한국문화인류학, 51(1), 3-50.
- 조성호. (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4(7), 14~23.
- 조성호. (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

- 진형익, 이미숙. (2019).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창원시 제조업 청년노동자 실태분석. *14(3)*. 33-57.
- 최나현. (2020). '자기만의 방'을 만드는 사람들. *여성학연구*. *30(1)*. 45-76.
- 최용환. (2015). OECD국가의 '청년니트' 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4)*. 85-115.
- 최종렬. (2018). 꿈과 서사,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와 국민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분석. *사회와이론*, 219-271.
- 추주희. (2017). 전남지역 청년여성의 고용 불안과 일 경험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7(3)*. 105-148.
- 통계청(2023).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 한승현, 임다혜, 강민아(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한인정, 이지은. "생태적 노동의 의미와 불안정성에 대한 탐색: 청년 생태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0.1* (2023): 67-109.
- Almås, I., Haushofer, J. and Kjelsrud, A. (2023). *The Income Elasticity for Nutrition: Evidence from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in Kenya*. NBER Working Paper No. 25711.
- Banerjee, A., Faye, M., Krueger, A., Niehaus, P., and Suri, T. (2020).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Innovations for Poverty Action Working Paper.
- Bruckner, Hannah. and Mayer, Karl U. (2005). De-standardization of the Life Cours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9*. pp.27-53
- Haushofer, J. and Shapiro, J. (2013). Household response to income changes: Evidence from an un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 in Keny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4(5)*. 1~57.
- Haushofer, J. and Shapiro, J. (2016). The Short-Term Impact of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to the Poor: Experimental Evidence from Keny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4). 1973-2042.
- Haushofer, J. and Shapiro, J. (2018). *The Long-Term Impact of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to the Poor: Experimental Evidence from Kenya*. Busara Center for Behavioral Economics, Nairobi, Kenya.
- KELA. (2020). Suomen perustulokokeilun arviointi. Sosiaali-ja terveystieteiden tutkimuskeskus ja muistioita 2020: 15. Helsinki: Sosiaali-ja terveystieteiden tutkimuskeskus.
- OECD. (2016).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Abstract

Youth's Narrative about Composition and Expansion of Dream-Capital: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Participants in the Busan Youth Basic Income Project

Injung Han* · Jeonghee Seo** · Jeessoo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dreams of young people living in Busan who participated in the basic income experiment. This is to look at the experiences of young people who still have dreams and are trying to realize them even in an era where youth are referred to as icons of frustration, and to explore how basic income has affected those experiences.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bout basic income experiences with 19 young people (excluding duplicate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and second rounds of the 'Busan Youth Basic Income Project'. As a result of the study, young people recognized and developed dreams that started out as fun as revealing their uniqueness.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social infrastructure was poor, pursuing a dream other than 'employment' was a struggle alone while doing separate livelihood work. In the end, young people were put in a situation where they had to give up their dreams. However, young people once again attempted an experiment called the basic income project, and the 1 million won per month earned through the basic income experiment helped young people freely invest in their dreams over a period of 7 months.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s over, but the policy of welcoming young people with no strings attached has given them their own experiences to sustain their dreams, allowed them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ursuing their dreams under better conditions, and given them allies to support their dreams. In this way, young people continued to move towards their dreams. In this way, the new mechanism of basic income for young people to pursue their dreams has transformed the narrative of young people's dreams and helped them pursue their dreams on a more stable basis. The youth's narrative like this shows the direction that policies that support the dreams of young people should pursue, and suggests the need for universal, unconditional, and individual basic income.

Keywords: Dream, Dream-Capital, Youth, Basic Income, Busan Youth Basic Income Project

◆ 2023. 10. 31. 접수 / 2023. 12. 15. 1차수정 / 2023. 12. 19. 게재확정

* Doctoral candidate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hanpalme@gmail.com)

** Professor of Social Welfare, Kunsan National University(sjh@kunsan.ac.kr)

*** Professor of Social Welfare, Kunsan National University(swlls@kunsan.ac.kr)